

# 생의 마지막까지 캄보디아에 사랑 전파

전 시애틀 한인회장 **故 윤운대씨**

14년간 현지 취약계층 돕기 앞장  
한인회 재건...집수리·의류 지원  
대장암 수술후에도 봉사활동 펼쳐

14년 동안 캄보디아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해 온 윤운대(54) 전 캄보디아 시애틀 한인회장이 최근 암으로 숨을 거뒀다.

그가 캄보디아에 도움을 손길을 내민 건 지난 2007년부터였다.

2006년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그는 가난한 캄보디아 현실에 충격을 받아 이듬해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앙코르와트 유적지 '시애틀'에 정착했다.

윤씨는 현지 고아원에서 빈곤, 장애, 에이즈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위해 청소·빨래·목욕 등을 해 줬다. 캄보디아 주거 지역에 텐트를 설치해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고, 캄보디아어를 배우며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다.



고(故) 윤운대씨(맨 왼쪽)가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한 당시 병문안을 온 캄보디아 국가대표 양궁 코치(맨 오른쪽) 일행을 맞이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윤씨는 '시애틀 한인회' 재건에도 힘써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국인 1000여명이 함께하는 단체로 만들었다. 한인회와 함께 현

지인 집을 수리하고 식품·의류·자전거 등을 지원했다.

한국 개인·단체와 협력하기도 했다. 경북

의사회, 열린사회, 충북의사회, 충북 육전군 자원봉사센터 등이 윤씨와 뜻을 함께 했다.

아내 류시명(51)씨도 거들었다. 지난 2010년 시애틀으로 이주한 류씨는 현지에서 발 마사지를 운영하며 봉사활동에도 도움을 줬다.

윤씨는 지난 2018년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았다. 종양이 간으로 퍼진 상태였다.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한 윤씨는 수개월에 걸쳐 항암치료, 대장암·간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받은 후 장루주머니(인공광문)를 찬 채로 시애틀로 돌아가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암이 재발해 폐·영양이빠 부위로 퍼진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를 찾은 윤씨는 "여생을 암치료를 받는 데 쏟느니 생명이 다할 때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숨을 거두면서도 "캄보디아의 고아들과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잘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큰징거미새우 친환경양식 기술지원 교육 실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와 함께 1일부터 6주간 큰징거미새우 친환경양식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1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개인 문진표를 작성하고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등 세심한 사전 검사를 거쳐 참석생 40명을 대상으로 135시간의 기술이전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 전북은 물론 서울·경기, 영남, 충청 등에서 지원한 교육생들은 13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게 된다.

센터는 향후 큰징거미새우와 함께 해상에 대해서도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한 뒤 창업 지원교육,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끌 방침이다.

교육 과정은 수산업법 등 수산양식이론, 양식장 시설이론, 양식기자재 및 수질측정기 등 이론·실습, 큰징거미새우 양식 관련 전판, 종자 생산 실습 등의 이론 교육, 전복 고장, 경남 창녕의 민물고기 양식장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큰징거미새우(Giant river prawn)는 징거미새우과의 민물새우로, 태국이나 대만 등 아열대성 지역에서 서식한다. 수컷이 체장 약 40cm, 400g까지 자라는 세계 최대의 민물새우이며, 고급 식재료로 인기가 높아 수산업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큰징거미새우는 6~9개월만에 최대 300~400g까지 성장이 가능하고, 1kg당 4만~6만원을 호가하는 품종으로 부가가치가 높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이다.

최연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은 "큰징거미새우 창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든지 부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이전과 함께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코로나 19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육생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사

◆**국기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장 임성현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김영진 ▲국립5·18민주지관리소장 유형선 ▲국립임실호국원장 김덕석

◆**한국전기안전공사**  
◇1급 승진  
▲전북지역본부장 박정훈  
◇2급(갑) 승진이동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서부지사장 박병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진흥단장 오진영 ▲특구사업

지원단장 채승환 ▲침해대응협력팀장 남연수 ▲AI빅데이터보안팀장(TF) 백형중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추현우 ▲데이터안전기반팀장 공재순 ▲데이터활용지원팀장(TF) 박윤식 ▲위치정보보육담당자 이정현

◆**광주대학교**  
▲기획처장 김황용 ▲인학처장 김삼엽 ▲국제협력처장 전정환 ▲국제협력부처장 홍성운 ▲교육혁신연구원장 박진영 ▲교육혁신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오선아 ▲교육혁신연구원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 류정희 ▲교육혁신연구원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김동진 ▲교육혁신연구원 이라닝지원센터장 전용렬 ▲작업치료학과장 방요순

## 광주 소방史 최초 여성 소방정 탄생

이정자 소방안전본부 구조담당 과장으로 승진

광주 소방 역사상 소방서장 직급인 최초 여성 소방정이 탄생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정자(54·사진) 시 소방안전본부 구조담당이 지난 30일 소방정(4급) 직위인 구조과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광주 소방에서 여성이 소방정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정은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직위로 '소방의 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광주시 여성 소방공무원은 모두 118명으로, 전체 1442명 중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장은 1986년 소방직에 입문해 남성 전문몰로 여겨졌던 소방관 사이에서 끈끈한 업무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찬란한 내 인생(재)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빴었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콘대인턴(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55 UHD 습터	00 인간극장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15 생방송 연금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편의점 셋백(재)
1	00 TV쇼 진품명품(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테레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45 아기상어 울리 투루투루			
3	00 출동! 유혹구조대 30 열린채널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특목 보험설계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0 시리츠M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맛남의 광장(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전국 TOP 10 가요쇼 오프닝 다시보기(재)
8	30 기막힌 유산	30 출사표(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출사표	30 콘대인턴 방구석 팬미팅 스페셜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20 골쟁 영화가 좋다(재) 50 KBS 재능방송센터(재)	1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교 :해양생태계를 구하라	40 나이트라인

## EBS1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EBS 마스터	19:00 오즈 : 마법을 찾아서
07:45 로보가 폴리	13:00 명의	19:30 최고! 후기심판
08:00 땃똥방 유치원	13:50 EBS 스페이스 공감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4:40 아기 동물 귀여워	20:00 건축탐구 - 집
08:45 워든지 뮤직박스	15:00 해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로보카폴리 송송뮤지엄	15:10 띠띠뽀 띠띠뽀(재)	장터 열전-메롱의 풍요, 베트남 라오스
09:15 또깨비 가족	15:25 로보카폴리 송송뮤지엄(재)	21:30 한국기행
09:30 몰랑	15:55 또깨비 가족(재)	<즐거워라, 여름놀이 4부 계곡에서 더위 사냥>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10 허풍선이 음악쇼	21:50 다큐 잇it
10:30 한국기행(재)	16:25 워든지 뮤직박스(재)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0 땃똥방 유치원(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00 EBS 뉴스	23:45 EBS 명강
12:00 EBS 정오뉴스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음 5월 12일 丙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첫 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48년생 횡재수가 보인다. 60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72년생 발상을 있어서 유연하다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84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마당이다. 96년생 갈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행운의 숫자 : 32, 63

**丑** 37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49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매우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61년생 좋은 인연과의 흐릿한 일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체계적이야 한다. 97년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4, 94

**寅** 38년생 문제점은 반드시 짚어주고 시정해야 하겠다. 50년생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니라. 62년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74년생 적용이 적절하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86년생 재물이 엄청나게 보이나 적 극적으로 수용하자. 98년생 완급 조절을 하라. 행운의 숫자 : 78, 74

**卯** 39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효과를 거둔다. 51년생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긴다. 63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 되리라. 75년생 과거사가 현재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다투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신경 써라. 87년생 의미가 없다. 99년생 지나치다면 마찰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7, 77

**辰** 40년생 제반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52년생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느니라. 64년생 선후를 정하지 않으면 실속 없이 분주해질 수 있다. 76년생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이익이 있다. 88년생 참된 뜻을 알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조성된다. 00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3, 66

**巳** 41년생 기다려 왔던 것은 들어오지만 슬픔은 더 많으리라. 53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65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허점을 날게 할 수 있다. 77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버린다면 만사가 길해진다. 89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 01년생 견인발발의 자세로 추진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57

**午** 42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르는 법이니 심신을 안정시켜야 할 일이다. 54년생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66년생 중에도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78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90년생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 하자. 02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를 낳으면서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행운의 숫자 : 41, 71

**未** 31년생 선행 조건부터 확실히 짚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43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부러지는 것 보다는 백 번 낫다. 55년생 조금만 더 버티면 내다낸 견고해질 것이다. 67년생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79년생 재물이 좋아질 것이니 기회가 오면 수용하라. 91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화고야 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90

**申** 32년생 대범하게 행동했을 때 수확도 클 것이다. 44년생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56년생 가운데 끼어서 곤욕스러울 수도 있다. 68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80년생 활용만 잘 하면 대박이 날수 있다. 92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3, 67

**酉** 33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옳다. 45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자. 57년생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비우면 반드시 채워지리라. 69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81년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93년생 돌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56

**戌** 34년생 상한된 마음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46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58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수출한다. 70년생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쓰느라고 애를 먹겠다. 82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94년생 솟구쳐 오르는 기세의 운로이다. 행운의 숫자 : 12, 84

**亥** 35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47년생 실효적인 관계를 지속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나중에 자리를 잡는다. 71년생 지금 확실해 해 뒤야 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의심스런 인연이니 경계심을 버리지 말라. 95년생 제반사가 불리하니 차분하게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14, 72